



# 일반인을 위한 뇌졸중 상식

주 민 경 ·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최근 들어 뇌졸중은 우리 나라에서 사망률 1위의 질환으로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고 또 최근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도 급격한 발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도 적절한 치료와 예방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뇌졸중이란 신경계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출혈에 의해서 급격한 신경계의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흔히 중풍이라고도 일컫어진다. 뇌졸중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흔히 알려져 있는 마비외에도 감각의 저하, 팔 또는 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함, 두통, 어지러움, 이명, 시력의 저하, 시야의 변화, 의식의 변화, 발음의 이상,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증상 등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출혈이나 경색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급격히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환자 자신이 이러한 뇌졸중 증세를 잘 자각하지 못할 수가 있으며 단지 기분이 이상하다든지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자연히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과성 뇌허혈증” 이

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뇌경색이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소실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추가의 뇌졸중이 곧 다시 발병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일단 의사의 문진과 진찰을 즉시 시행해서 뇌졸중 가능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추가의 진단과정과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진찰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앞에서 말한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뇌경색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 심장 등의 이상에 의해 피 덩어리가 날아가서 생긴 색전증, 그리고 피의 응고 이상 등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출혈은 그 부위에 따라 경막의 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등이 있다. 동맥경화는 혈관내에 동맥경화 물질이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인데, 뇌졸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심장의 혈관에 생긴 동맥경화는 허혈성 심장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밝혀진 동맥경화

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유전적인 소인 등이 알려져 있다. 색전증은 그 구체적 질환으로는 부정맥, 심장의 발생과정에서의 이상, 심부전, 심장판막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있으면 피가 혈관 내에서 굳어서 핏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뇌로 날아가서 색전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피의 응고의 이상으로는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응고 이상, 혈액질환에 의한 이상 등이 있다.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외상, 혈관의 기형, 뇌혈관의 비정상적인 파리의 생성, 고혈압, 뇌종양 등이 원인이 된다.

뇌졸중의 치료로서는 출혈에 의한 경우에는 일단 출혈된 피를 제거해주는 수술이나 정도에 따라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약물을 사용하여 더 이상의 뇌경색의 진행을 막으며, 뇌경색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교정해 주는 치료를 시행하여 추가의 뇌졸중의 위협을 줄이고, 뇌졸중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뇌졸중 예방약을 투여한다. 뇌졸중의 원인인자에 대한 치료로는 앞에서 말한 고혈압 조절을 위한 고혈압치료, 당뇨조절을 위한 운동, 식이요법, 당뇨약 복용 그리고 심장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장질환 치료,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질환 치료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뇌졸중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 뇌경색의 경우에는 혈관이 막힌 이후에 신경조직의 사망과 아울러 손상된 부위가 더 커지기 전에

뇌경색부위를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막힌 경색 부위에 다시 피를 흐르게 하여 뇌경색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최근 들어 소개되어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는 발생 후 수 시간 이내에 효과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미 경색으로 인한 손상이 뇌조직에서 진행하여 피를 다시 흐르게 해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또한 뇌출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

빠른 시간 내에 혈전용해 치료를 한 경우에도 뇌출혈의 위험은 존재하며,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색부위에 피를 다시 흐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뇌경색이 혈전용해 치료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발생한지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빠른 진단과 치료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뇌졸중은 파비이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가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뇌졸중의 다양한 증상을 명심하고 만약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뇌졸중의 예방으로는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당뇨와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조절과 적절한 운동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chumk@chollian.net〉